

‘비무장 빈 라덴 사살’ 아랍권 분노 확산

수장 방식도 무슬림 정서 안맞아 반미 감정 커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비무장 상태에서 미군에 사살된 것으로 알려지자 아랍권 무슬림들 사이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살 소식이 알려진 직후만 해도 많은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테러리즘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죽음을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사살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빈 라덴에 대한 동정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반미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아부 알-아베드네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살할 수 있는가”며 “이번 일로 빈 라덴을 동정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은 지난 1일 미군의 작전 당시 빈 라덴이 최후 순간까지 파키스탄 자신의 은신처에서 총격전에 참여하며 저항했다 사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빈 라덴이 비무장 상태에서 사살됐다고 정정했다.

현장에 있었던 빈 라덴의 12살 딸도 “미군이 1층에 있던 빈 라덴을 생포한 뒤 가족들 앞에서 사살했다”고 파키스탄 정보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네이비실 대원들이 빈 라덴 은신처를 급습했을 당시 빈 라덴 측근들이 총격 대응조차 하지 못했

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파키스탄의 한 관리는 아랍권 위성 보도 채널 알-아라비아를 통해 “단 한 발의 총알도 미군이나 미군 헬기를 향해 발사되지 않았다”며 작전 중 추락했던 미군 헬기도 총격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결함 때문에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 라덴 시신에 대한 미군의 시신 처리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사탕 후 24시간 내에 매장하는 이슬람 관례를 존중, 빈 라덴의 시신을 아라비아해로 옮겨 신속히 수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권 학자들은 수장이 무슬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레바논 성직자 오마르 바크리 모하마드는 “미국인은 이런 방식의 수장을 통해 무슬림들에게 굴욕을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집트 카이로의 종교지도자(이맘) 아흐마드 알-타이브도 “빈 라덴의 수장 방식은 이슬람법의 원칙과 종교적 가치, 인도주의적 양식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사망 당일 일을 이전에 주검의 머리가 성지 메카 쪽을 향하도록 놓혀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다만 빈 라덴을 향해 중인 선박 안

에서 숨졌을 경우 신속한 장례를 위해 수장 방식도 허용된다. 그러나 빈 라덴의 경우 파키스탄 육지에서 사살됐기 때문에 미군이 시신을 헬기로 옮기면서까지 수장할 필요는 없었다고 무슬림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언론인 아셈 알-카디는 “이슬람권에서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전통은 없다”며 “미국이 기소 없이 그를 살해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빈 라덴 사진 공개 안하기로”

오바마 “사망 의심여지 없어... 선동 수단 막아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녹화한 CBS 방송 ‘60분’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빈 라덴을 사살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조사와 DNA테스트 결과를 언급하면서 “알-카에다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빈 라덴이 죽었다는 사실에 의심은 없다”면서 사진 공개로 이런 사실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머리에 총격을 받은 누군가의 생생한 사진이 추가적인 폭력을 선동하거나 선전의 수단으로 떠올릴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진을 (슬리의) 트로피들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사진들의 생생함을 감안한다면, 사진 공개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및 정보당국자들과의 협의 끝에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그들 모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연립뉴스



“정치권 원칙 지켜야 선진국”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순방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일 이태원 디바이 펠리스 이크로폴리스 호텔에서 이경현 의원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정치권에서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표는 마지막 방문국 그리스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위상에 걸맞은 환대를 받았다.

연립뉴스

“두들겨 맞는 공무원 하루 평균 1.5명”

연간 566명 폭행 당해 경찰·소방 76% 차지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이 하루 평균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한나라당)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0년 한해 평균 566명이 폭행을 당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명에 이르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 530명, 2006년 508명, 2007년 660명, 2008년 530명, 2009년 508명, 2010년 660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직업별로는 경찰이 488명, 소방직이 15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일반직 11명, 교육직과 기능직이 각각 8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찰이 많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軍, 머리 크고 배 나온 운동선수”

김관진 장관, 상부구조 개혁 필요성 역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현재 군(軍) 구조는 머리 크고 배 나오고 팔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며 군 상부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담당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지금은 상부에 인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80년대 들어 대부분 국가가 합동군 혹은 통합군 형태를 띠게 됐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20~25년 정도 늦었다”며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 구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강대국이 항

상 이기고 약소국이 항상 진 것은 아니다”면서 “군 개혁을 잘 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기무사 관계자는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전날 검찰 발표에 대해 “(나로선) 북한 군부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이는 기무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에 관한) 조사는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후쿠시마 원자로 첫 작업원 투입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건물 내부에 지난 3월 사고 후 처음으로 작업원이 투입됐다.

도쿄전력은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 4개 반 12명의 작업원을 투입해 환기를 위한 대형 호스를 밖으로 연결되는 공기정화장치에 접속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최초의 수소폭발이 발생한 이후 원자로 건물 내부에 작업원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업원들은 3명씩 4개 반으로 나누어 환기용 대형호스 8개를 1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25m 지점까지 끌어 넣는 작업을 실시했다.

도쿄전력은 연료봉이 들어 있는 원자로의 격납용기를 물로 채우는 이른바 수관(水箱)작업을 통한 핵연료 냉각을 추진하고 있다.

연립뉴스

아프간 한국군 기지 로켓포 4발 떨어져

두발 기지·한발 외곽에... 인명·장비 피해 없어

5일 오전 2시께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 기지 일대에 휴대용 로켓포(RPG-7) 4발이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지시각으로 4일 오후 9시30분께 차리카 기지 일대에 미상의 포탄 4발이 떨어졌으나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면서 “2발은 기지 안에, 1발은 기지 외곽에 각각 떨어졌고 1발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우노부대는 미군과 공조해 신속대응팀(QRF)과 헬기 등을 동원해 정찰을 실시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면서 “오우노부대는 지

난탈 30일부터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했고 최근 아프간 정세와 관련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우노부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50분까지 기지 안팎을 수색 정찰해 차리카 기지 연병장과 경찰훈련센터 공사현장 인근에서 RPG-7 추진체와 파편 여러 조각을 수거했다.

RPG-7 최대사거리 1~1.5km의 직사각형 포탄 로켓포 발사 원점은 한 곳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차리카

기지 안팎에 RPG-7 4발이 떨어지는 등 차리카기지를 겨냥한 포탄 공격은 올해 들어서만 6차례 발생했으며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우노부대는 빈 라덴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30일부터 테러 세력의 거점 공격 강화 추세에 따라 초소 증강운용, 순찰·감시장비 강화, 필수 작전 이의 영위활동 제한, QRF 출동 대기태세 유지 등 강화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우노부대장 김무수 대령은 이날

국내 언론과 한 전화통화에서 “교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다”면서 “공격세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프간 현지 경찰과 협조 하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립뉴스



유전일식 참치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점식 특선 17,000원

유전 특점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

古家 고향의 맛

정통 고가약소리탕

약탕기 홍삼삼계탕

약탕기 홍삼삼계탕 4월1일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게오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소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소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